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1)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기초조사부터 탄탄히

2015년 실태조사 바탕으로
2017~2021년 5개년 걸쳐
제주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
3년 주기 조사 제시해놓고도
제주도 여태 후속 작업 없어

2017년 ‘예술로 밥먹영 살아점수광?’이란 이름으로 11회에 걸쳐 제주 예술인과 기획자의 목소리를 들은 일이 있다. 예술로 꾸러가는 삶, 그보다 더 나아졌을까. 이번에는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이라는 제목으로 수회에 걸쳐 제주 예술인 복지정책의 오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2014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5조엔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다.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의 복지 실태와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조례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태조사는 사실상 손을 못댔다. 기존 유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먼저 계획을 짰 뒤 향후 ‘예술인 복지와 창작 여건 실태조사’에 대한 연도별 일정을 잡았다.

▶최근의 현장 상황 정보 수집 필요=정부 차원에서 예술인복지법을 만든 해는 2011년이다. 이듬해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을 열었다. 예술인들의 비참한 죽음 이후 사회적 지위와 생존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예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인 복지 조례가 생겨난 일도 그같은 흐름과 닿아있다.

하지만 제주는 조례 제정 단계에

서 멈춰 있는 상태다. 부산시와 대조를 이룬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와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2017년에는 부산문화재단에 부산예술인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부산시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2015년에 이어 3년 뒤인 2018년에도 진행했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하면서 그간 변화된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의 지역 예술인 실태 파악과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복지정책 과제를 발굴하려는 목적이 크다.

▶계획상 지난해 조사에 2억원 투입 예정=제주도가 2017년 처음으로 3개 분야 12개 과제에 58억7000만원

이 소요되는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세우면서 참고한 실태조사 자료는 그보다 2년 전인 2015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뢰한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 보고서’였다.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장이 ‘제주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적 앞서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하나 결국 단발성에 그쳤다. 2015년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제주 예술인 실태조사 계획은 들리지 않는다.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는 이미 지역 예술인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수집과 업데이트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자며 3년 주기 ‘예술인 복지와 창작 여건 실태조사’ 항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 1억원, 2019년 2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프랑스 대표 화가 혁명과 열정을 품다

베르나르 뷔페 작품전
저지리 갤러리 데이지



베르나르 뷔페의 ‘카르멘’ (1981).

지난 15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6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72-4200. 진선희기자

주말엔 바람 따라 제주섬 문화기행

국립제주박물관서 운영
5월 30일부터 6회 진행

‘집콕’을 잠시 벗어나 바깥 바람을 맞으며 제주섬이 품은 문화를 만나보자.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이 ‘바람 따라 떠나는 제주 문화기행’이란 이름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일정인 5월 30일에는 한상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안내로 ‘산책하며 배우는 사라봉 마을 유적’을 주제로 박물관 인근 칠머리당, 곤을동 마을, 일제 동굴진지 등을 걷는다. 6월에는 김승의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제주를 그린 화가들’을 주제로 박물관과 미술관 투어를 이끈다.

제주작곡가협회 워크숍

신예원씨 포스터 당선작

제주작곡가협회(회장 임재규)는 ‘세계 속의 제주음악’을 주제로 조영배 제주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워크숍을 연다.

이달 19~21일 오후 7시30분 제주관광대 평생교육원 13층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을 받는 ‘탐라악(耽羅樂) 기반 구축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제주여민회가 실시한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공모에서 신예원씨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은 ‘성화봉송 주자의 힘찬 발걸음과 타오르는 불꽃의 이미지’가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의 슬로건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다.

통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풍경

강요배의 ‘금강산과 DMZ’
6월부터 제주국제평화센터
현장 답사서 회화·드로잉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표어 때문일까. 제주섬은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북녘 땅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처럼 느껴진다.

제주4·3평화재단이 구축해놓은 제주4·3아카이브 온라인판을 보면 70여 년 전 이 섬에서 벌어진 제주4·3의 발단은 ‘자주 독립’에 대한 요구였다.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대회장인 안세훈은 “3·1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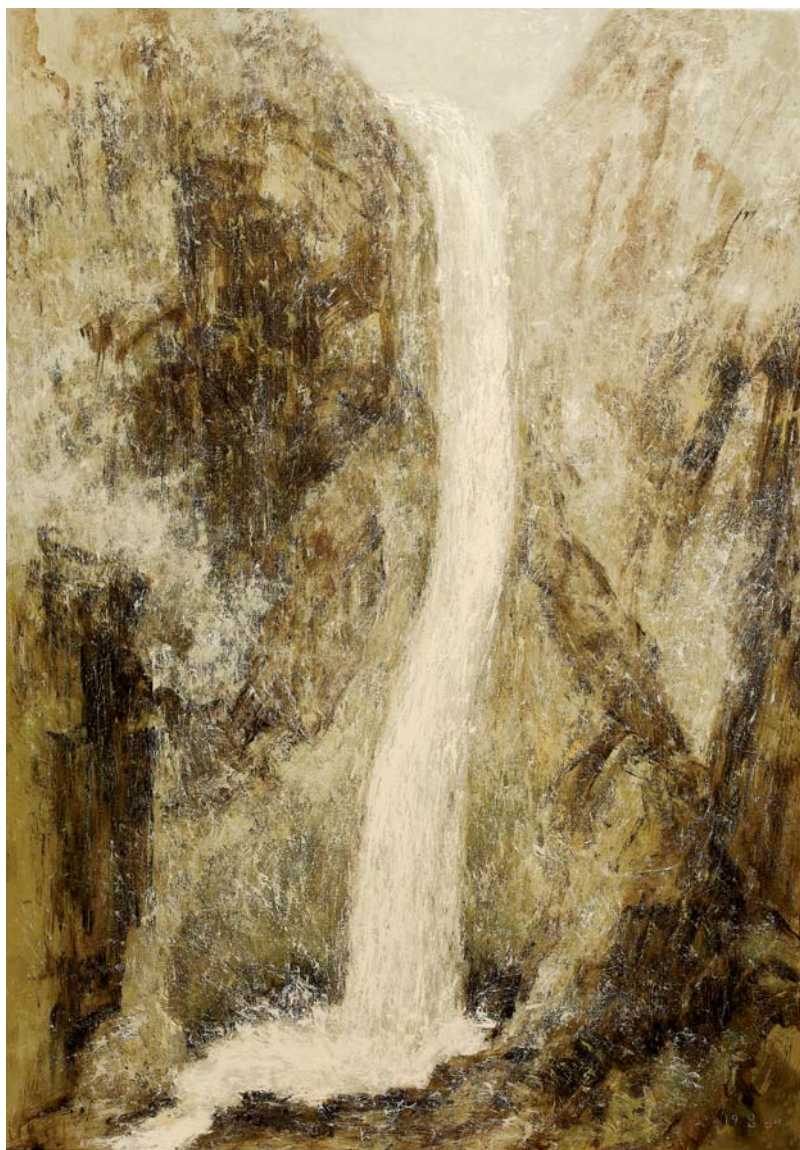
일찍이 ‘제주민중항쟁사-동백꽃지다’ 연작으로 제주4·3을 그림에 담으며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제주 화가 강요배. 그가

이번엔 통일로 향하는 길목에서 붙잡은 풍경들을 펼쳐놓는다.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리는 시설로 조성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평화센터(센터장 김선현)에서 진행되는 ‘금강산과 DMZ’ 기획전이다.

이 전시에는 강요배 작가가 2000년 ‘DMZ 답사길 프로젝트’. 2007년 금강산 재방문 기간 동안 스케치한 드로잉과 회화 작품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강 작가가 지난 기억들을 되살리며 작년에 아크릴화로 새롭게 제작한 신작 ‘구룡폭 3(사진)’과 ‘중항성’을 비롯 ‘덕흥리 고분 여인’, ‘북녘 사람들’ 등 현장 스케치와 드로잉 작품을 볼 수 있다. 답사 당시 기록이 담겨있는 지도, 메모장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관중으로 전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문의 064)735-654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정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10년

8개 참여기업 “하자보증기간” 비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